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새보람

Saeboram

- 3

뉴스

복지축소정책에 장애인 투쟁
- 12

특집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 14

인물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윤한광 · 전순식 부부
- 17

국제

장애인 히어로 만화 탄생
-

지장협,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열어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시상식…16명 수상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KBS 이성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대상(국회의장상)’은 김형곤(지체장애 6급)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전북 지역 지체장애인의 구심점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해 온 김형곤 협회장은 전북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앞장섰고, 전북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이룬 공적을 인정받았다.

‘봉사대상(대법원장 표창)’은 국내 외 수백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과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실천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이사장 안상수 씨가 수상했다. 안상수 씨는 남성듀엣 수와진의 멤버로 잘 알려져 있다.

‘화합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광주광역시청 노인장애인과 정호심 주무관이, ‘자립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주)윌라인 금동옥 대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송희성 부장,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 장운곤 행정도우미,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김택진 지회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김찬극 지회장,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강릉시지회 홍윤서 지회장이 각각 받았다. 이어서 ‘지도자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김현탁 지회장,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 고창남 지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정규인 지회장,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유제원 지회장에게 주어졌다.

이밖에도 지장협 중앙회 양병춘 조직시설국장 외 2명이 ‘모범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지장협 최우수 협회와 최우수 지회는 각각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선정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은 대회를 통해 “장애인복지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우리 협회는 더욱 내실있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지장협은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이날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해왔다. 이 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열려

시설장 능력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 교육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들의 자질 향상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박2일간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2015년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연수'를 개최했다.

지장협 산하 전국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전문가로 진행됐다.

강의는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의 '직업재활시설 윤리경영의 필요성', 마케팅 전문 김은정 강사의 '서로를 이해하는 감성지능 의사소통 기법', 우석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김동주 교수의 '2016년 직업재활시설평가 및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기념 촬영.

평가준비'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성 사무총장은 "직업재활

시설은 윤리경영을 철학과 비전으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역량강

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윤리경영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과 시설은 물론 직원 모두가 윤리강령과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정 강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감성의 활용은 시설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시설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동주 교수는 201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주요 지침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평가등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연수에 참석한 각 작업장 원장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장의 능력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시상

장고협, 전국 중·고교 비장애 청소년 20명 선정



2015 장애청소년 Best Friend 시상식 기념 촬영.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11월 14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이번 시상식은 통합학급 내에서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또래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모범이 되는

비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심사는 특수교육 및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총 20명(팀)의 Best Friend(개인 17명, 단체 3팀)를 선정해, 협회장 표창과 2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했다. 그중 최고 득점자에게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을 수상한 금파중학교 홍명택 학생은 활동사례수기 발표에서 "나와 친구는 함께 성

장하고 있다. 동수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 장애라는 편견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표창 수상자인 월곡중학교 김수현 학생은 활동사례수기 발표에서 "이 작고 소중한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부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을 밝혔다.

표창대상 학생을 추천한 모 학교 교장은 "실력도 좋고 스펙 쌓기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배려와 인성을 가진 학생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담당 팀장인 조호근 사회복지사는 "수상자 여러분은 장애 학생에게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Best Friend'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장애 학생에게 소중한 친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멋진 관계가 되기를 바

장애인 차량 사고 시 대처 필요

운전보조장치 설치된 차량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수리기간 장애인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기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장애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운전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

차를 사용하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차 금액의 30%를 교통비로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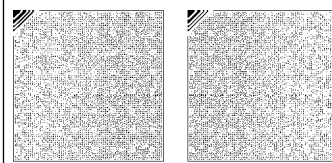
그런데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사고가 나도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렌터카가 없어 대부분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솔루션 측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수리기간 장애인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과 더불어 '2015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문화제'에서 입상한 작품도 함께 전시되

어 장애인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알리는 동시에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복지 축소 철회 집중결의대회 열려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전국단위 투쟁 선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국의 장애인 단체가 연대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조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된 지자체의 1496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251개(약 1,953억 원, 빈곤층 510개(약 1,809억 원), 노숙인 24개(약 10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785개의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이 발표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축소 및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범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동대위)는 10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맞은편에서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비방안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축소철회장애계공동대위는 정부가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제한을 위반해 지출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한국어성장애인연합 유영희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비방안은 오히려 장애인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유 대표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자체 사업을 정부 허락을 맡고 해야 하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걸었던 맞춤형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자부담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원한 것인데 이를 유사중복이라며 삭감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지회장은 “얼마 전 마포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신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100명에게 활동보조 720시간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모자란 시간을 보조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가지원을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장애인이 많다.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자체의 추가 지원 시간을 없애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사형선고와 같다. 이런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연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를 방문해 김무성 대표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비판

반복지적, 비민주적 정비방안 철회 요구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은 복지 축소 철회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10월 26일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추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남찬섭 교수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을 발제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총연맹(회장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축소’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 정비 등 현실로 다가온 장애계의 피해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권능 상근연구위원과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이 공공성 후퇴와 지방자치권 훼손의 문제를 짚었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정부는 인력보강과 같은 양적인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복지중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중앙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성이 주민의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감소될 수 있으며 서서히 수요자중심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지난해 송파 세모녀, 동두천 모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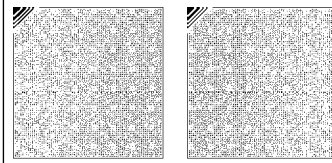
생활고 가족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1년만에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으로 뒤통수를 쳤다”며 “1500여 개 사업 통폐합은 국가의 인권 수준을 1980년대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구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정비사업에 지역 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센터도 포함됐다”며 “이는 손말이음센터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자장면을 주문하고 싶을 때 손말이음

센터에서 단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가거나 구직 면접, 대학 공부 등을 할 때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지원받는 곳이 수화통역센터다. 농인은 필요에 따라 들을 한 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한 곳이 폐지된다면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중심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야기될 장애인 복지사업 축소를 비판하여 범장애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 성료

아·태장애인 10년의 효과적 이행사항 점검



제4차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의 사이드이벤트 모습.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합(AP-DPO United) 주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48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가한 ‘2015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열렸다.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는 각국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효과적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각국이 당면한 장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2012년부터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천전략 목표 6, 9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여성장애인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2015 아태여성장애인리더십포럼’과 ‘제4회 AP-DPO United Conference’가 개최됐으며, 총회를 통해 5개국 6개의 신규 단체 가입 승인 및 여성위원회의 신설을 확정했다.

AP-DPO United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히라노 미도리(일본DPI 회장)와 나은화(한국DPI 여성위원회 위원장)가 선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회원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홍현근 국장이 발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접근성’,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욕구과약’, 클라우드 매핑, 자립생활분야에 대한 한국장애인단체들의 정보공유가 진행되었다.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마무리

4차에 걸쳐 전국 장애인인권위원 교육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2015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마무리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차에 걸쳐 이뤄진 이번 교육은 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교육은 9월 16~17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수도권 장애인인권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차는 같은 달 22~23일 안면도리솜오션캐슬에서 충청권 장애인인권위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0월 20~21일 변산에서 열린 3차 교육은 호남·제주 장애인인권위원 130여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으로 같은 달 26~27일 광주에서 열린 4차 교육에서는 영남권 170여 명이 강의를 들었다.

교육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며 “장애인의 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국장애인재단 서인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4차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환 사무총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최신 사무관이 ‘장애와 차별’을, 지장협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이 ‘인권의 관점에서 본 편의증진법’을 강연했다.

지장협은 올해를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져 향후 장애인인권위원의 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쓰고, 전국적으로 활발한 지역사회 인권 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권익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과 빈곤’ 정책토론회 토론회 전경.

장애인의 나이들에 따른 소득과 건강실태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11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동의대학교 SSK 삶의 질과 국민행복 연구팀 유동철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은 단순히 장애노인만이 아니라 생애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장애인의 삶은 20

대부터 보아도 건강과 소득수준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이것이 평생을 거쳐 진행되기에 생애관점의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정책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중증장애인 가산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의 가입률 제고와 급

장애인 건강, 생애관점에서 접근해야

고령화 시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정책 과제 논의

여수준 향상 조정, 장애인연금의 재편 및 급여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 조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담당할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립재활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위

상을 부여하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관리·평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이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활체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활체육의 목적은 신체적 기능과 활동에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위한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통해 자립적인 체육 활동을 동기화해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되어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인적 치료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1차 진료기관을 필수로 보건소를 지정해 주치의를 둔다고 해도 주치의 제도의 특성인 전인성 담보에 다양한 장애를 고려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시설들이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구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개막

전체대상에 서양화 부문 권영석 씨 수상

장애문화예술인의 축제이자 독창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가 11월 6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갤러리에서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주관하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198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장애문화예술인을 발굴해 온 대표 행사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번 예술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양화, 동양화, 서예, 일반사진, 휴대폰사진 등 5개 부문에 걸쳐 사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개막식에서 김광환 중앙회장과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은 서양화 부문 권영석(19세, 지적장애 3급) 중문고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권 씨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 3층의 복도를 자신의 시각으로 독특하게 캔버스에 담았다.

권 씨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

쁘다”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전했다.

서양화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백우빈(16세, 뇌병변장애 1급), 동양화 부문 대

상(이하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주진옥(62세, 뇌병변장애 1급), 서예 부문 대상은 송호남(57세, 지체장애 3급), 사진 부문 대상은 박준형(49세, 지체장애 1급) 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밖에 각 부문별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 4명, 우수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상)에 6명,佳作(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상)에 18명, 입선(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상)에 18명이 선정됐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문화예술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절실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술제에서 수상하신 장애인문화예술가 분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장협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작품은 9일까지 해누리타운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요구 커져

국회 계류 중...공동행동 기자회견 후 1인시위 돌입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 2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0월 2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행 정신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본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정책참여,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지원을 비롯한 취업, 주거,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와

사회복지시설 이용가능성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와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OECD 가입국의 연 평균 입원일수가 길어야 30일”이라며 “한국은 연 평균 입원일수가 260일이나 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연대 강정희 활동가는 “재작년 지방의 열악한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대부분 장기입원 환자였다”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강제입원을 당해 사회적 기

행동발달증진센터 전국 설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 시행령 의결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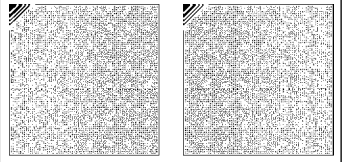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법령이나 복지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등을 감안해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능에 손상을 입고 나오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의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동행동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위 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진솔인들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2차 교육 100여명 참가...전문성 강화 역점



‘2015년 제2차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전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경북 경주시 대명리조트에서 ‘2015 제2차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지장협은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장협은 종전과 달리 교육의

참여확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함에 따라 제1차 교육은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 250여 명이 참가해 강의를 듣는 한편 열띤 분임토의를 펼쳤다. 교육은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특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장협 임상범 정

책지원부장의 ‘2015년 변경된 복지시책’,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민병윤 전 소장의 ‘사례를 통한 여성장애인 상담기법과 응대’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는 장애인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만큼 실무자들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항상 연마하여 상황 대처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용가능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

노웅래 의원, ‘소방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규정을 강화,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다고 11월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인명사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일반인과 차이 없

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의원은 “정부가 화재를 예방하지 않고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하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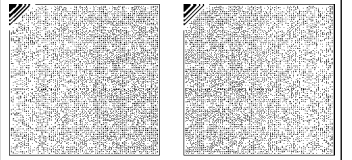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3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최초 1회 인증)
- 4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릅니다.
-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
- 6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신고위치 수정가능)
-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대구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역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권희, 이하 충남지장협)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가 각각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먼저 6일 충남지장협이 부여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12명이 충청남도지사 표창, 도의회 의장 표창, 도교육감 표창, 충남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충남지장협 측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 전동휠체어 3대를 지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자



충청남도지체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열린 축하 공연 모습.

랑스런 충남 장애인복지 공로대상'은 지체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충남지장협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에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2014년까지는 대상자를 1명씩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의 범위를 확대해 기초단체장 부

과 민간인 부문으로 나눠 수여했다.

기초단체장 부문은 '희망을 꿈꾸게 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 통합형 복지실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한 내빈과 지역 장애인들.

취약계층 제로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이용우 부여 군수가 받았다.

민간인 부문은 장애인당사자로서 2002년 충남장애인신문사를 창립해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

과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충남장애인신문사 탁정원 사장이 받았다.

이어서 10일에는 대구 인터볼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제15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기념식은 지역 지체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지체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문'을 낭독하며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회장의 축사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제33회 전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

지역 지체장애인의 화합과 우의 다져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고리던지기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가 주최하고 진안군지회가 주관한 '제33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16일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 지역 14개 시·군 선수단 1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심보균 행정부지사 및 진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체육대회에 앞서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게 중앙회장 표창과 진안군수 표창 등을 14명에게 수여했다.

대회는 예선전으로 치러진 좌식배구와 게이트볼의 경우 순창

군과 군산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당일 치른 휠체어 100m 달리는 남자부에서 순창, 남원, 군산이 순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남원, 정읍, 군산이 활약했다.

줄다리기는 군산, 순창, 정읍이 순위에 올라갔으며, 고리던지기는 다른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한 임실, 무주, 익산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승을 노리던 군산시는 고리던지기에서 임실군에 발목을 잡히며 종합우승을 순창군에게 내줬다.

대회를 주관한 김형곤 협회장은 전북 지역 지체장애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문경시지회 여성요가교실 성황



문경시지회가 진행한 요가 교실에서 동작을 배우고 있는 여성장애인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지회장 박홍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요가교실을 마무리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실시한 이번 요가교실은 정기적인 교육으로 지역 여성지체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지역 사회의 평을 듣고 있다.

요가교실 참가자 권 모 씨는 "몸이 불편해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 요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몸이 유연해졌다"며 "재활에 도움이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참가한 여성장애인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후에도 사무실에서 자체 요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니 꾸준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시지회, 지체장애인 문화탐방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는 10월 16일 지역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토문화탐방을 다녀왔다. 2015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이날 문화탐방은 지체장애인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문화탐방을 통해 평소 바깥출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참가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춘천 제이드가든 수목원과 의암호 주변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경치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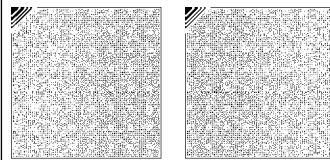
끽했다.

이날 참가한 지체2급 강준호(73) 씨는 "화창한 가을 날씨에도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좋은 날씨에 나들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경규 지회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지체장애인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지회가 진행한 지체장애인 문화탐방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열려

지역 지체장애인 2000여 명 모여 화합 도모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가한 지체장애인들이 줄다리를 하고 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들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홍수)가 10월 12일 화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23회 강원도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지역 지체장애인 20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최문순 화천군수, 전창범 양구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장세국 도

의원, 김완식 대한노인회 도협회장, 박주선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임조성 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이상용 도농아인협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투호, 줄다리기, 한궁, 후크볼, 한마음 공룡

기기 등 8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치며 우정을 쌓았다.

이날 우승은 양구군이 차지했고, 2위는 정선군, 3위는 삼척시에 돌아갔다. 화합상은 화천군, 질서상은 홍천군, 응원상은 강릉시가 받았다.

포센, 포항 구룡포분회에 연탄 전달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연탄, 라면 등 생필품 지원



포센 봉사단이 포항시지회 산하 구룡포분회를 방문해 연탄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주)포센(대표이사 김동원) 봉사단은 11월 16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산하 구룡포분회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진행했다.

이날 포센 임직원 30여 명은 비가 오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연탄 500장과 라면 20박스를 구입해 전달했다.

포센 김동원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을 앞두고 난방비 걱정이 큰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포센은 포스코의 시설경비와 출입관리 등 경비보안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호 보안 전문회사로 매 주 무료도시락 배달 및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장애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신체 기능 향상과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 기여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임순봉, 이하 인천지장협)는 10월 23일 서구 신현동 실내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제21회 인천장애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향상과 인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임순봉 대회장의 격려사와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선수와 임원, 심판, 자원봉사자 등 140명(총 8팀)이 참가해 각 팀별 친목을 도모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우승과 준우승은 모두 동구에서 나왔다. 우승은 동



제21회 인천장애인게이트볼대회 기념 촬영.

구의 아리랑팀이, 준우승은 빅스타팀이 차지했다. 3위는 중구의 중구팀과 강화도의 백호팀이 기록했다. 장려상은 강화도의 청룡팀과 남구의 남구팀이 받았고, 우수선수상은 웅진군 김경범 선

수와 강화도의 반혜자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또 윗놀이, 화살촉 넣기 등 행사에 참여한 모든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경기도 진행됐다.

군위군지회 마산으로 편의시설 견학



군위군지회가 마산 국화축제장 및 돌섬 유원지로 2015년 군위군지회 임직원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지회장 김정기)는 11월 3

일 임직원 및 여성자립지원센터 분회장, 인권지킴이단 30여 명과

경남 마산 국화축제장 및 돌섬 유원지로 '2015년 군위군지회 임직원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 장소는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보장구 대여와 이동편의도 잘 갖춰져 관람에 용이했다.

군위군지회 김정기 지회장은 “잘 갖춰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다함께 즐겁게 견학할 수 있었다”며 “군위로 돌아가 지역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지회, 시청 행복카페 수탁 선정

중증장애인의 취업 확대 기대 모아

지난 11월 4일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지회장 지현상, 이하 청주시지회)는 『청주시청 내 행복카페 수탁운영공고』에 공모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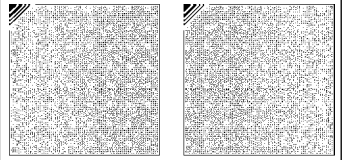
비장애인의 실업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 시대에 장애인 일자리 확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소가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청 내 행복카페는 중증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주시지회는 정기적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청주시청 의회동 1층에 위치한 카페는 실내 약 18평, 실외 테크공간의 규모로 청주시청 직원과 민원인들을 위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이 될 예정이다. 카페 한편에 장애인 생산물 전시판매도 병행하며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카페는 11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초 개업할 계획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5 힐링 포레스트 개최

지장협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소통의 장 마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이 소통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31일 충북 제천에 있는 리솜포레스트에서 '2015년 힐링 포레스트'를 개최했다.

2014년 4월 정식 발족한 지장협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협의회장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호 원장)는 29개 시설 150여 명의 종사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5 힐링 포레스트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은 20개 시설 110여 명의 종사자와 법인 관계자가 참석해 시설소개 및 장기자랑을 진행했다. 또 일상에서 벗어나 200년

보존된 원시 소나무 숲에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설 및 직원이 화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뛰어주길 바란다”고 치사를 전했다.

행사 참가자는 “처음 만나는 자리지만 서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종사자들 간에 만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내년에는 각종 교육과 함께 1박 2일간 소통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하기로 했다.

제9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성료

7개 부문 장애인 및 비장애인 1500명 참가



제9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장애인 참가자들이 휠체어마라톤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라톤을 통해 하나로 어울리는 대화합의 한마당 ‘제9회 전국어울림마라톤

대회’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 주변도로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문희상, 홍문종 국회의원,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기종목은 모두 7개 부문으로 레이싱부 5km, 생활용휠체어 청장년부 5km, 어울림부 5km, 청소년중고등부 5km, 지적장애인부 5km, 장애인통합부5km, 시각장애인부 10km, 비장애인부 10km로 구성됐다. 대회에는 선수 및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장복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체육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장장애인체육회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처인장복, 밀반찬지원 활발

삼성전자 오케이(5K) 365 희망천사 지원



처인장복 밀반찬지원 사업 담당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복)은 올해 3월부터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오케이(5K) 365 희망천사 밀반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 인근 5km 내 지역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민관 협력 체제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복지혜택이 미흡한 차상위계층까지 수혜대상을 다각화했다. 3월부터 용인지역 내 저소득 120가정에 월 2회씩 밀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밀반찬지원사업 대상자 홍○○ 씨는 “고령 독거장애

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밀반찬을 제공받아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밀반찬의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두리하나봉사단은 “용인지역 내 식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양과 개인의 기호를 고려한 밀반찬 조리를 약속했다.

삼성전자 오케이(5K) 365 희망천사 밀반찬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처인장복 지역연계팀(031-320-4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장복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진행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은 복지관의 각 자원봉사자 단체 회장 및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21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중 1부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2부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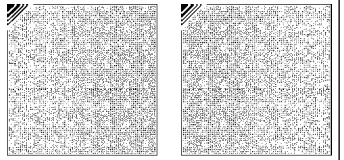
전문교육은 김수연 강사(친절을 만드는 사람들)를 초청해 감성 서비스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수연 강사는 상처받지 않는 서비스 실천하기, 상황 톨플레이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받는 내내 자원봉사자들은 열정적으로 경청했다.



영천장복이 자원봉사자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부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이제근 관장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보냈다.

영천장복 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하는 서비스로 지역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우측보행 하는 당신이 좋아요”

북부장북, 서울지장협 캠페인 펼쳐



북부장북이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측보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은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측보행 캠페인’을 11월 11일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및 은행사거리에서 실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70명이 횡단보도 앞에서 4인1조로 교통질서 안내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우측보행합시다”라는 선창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횡단보도 안전수칙 배지도 2000개도 배부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우측보행 습관은 거리질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담겨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우측보행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체3급) 씨는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오늘처럼 불편 없이 다닌 적은 처음이다. 걸음이 느려 횡단보도 건널 때 이리저리 부딪히다 빨간불로 바뀔까 봐 불안했는데, 오늘은 여유롭게 건널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부장북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측보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체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관 협력해 캠페인을 주관한 ‘라이트 캠페인 본부’는 이번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북부장북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구청, 노원경찰서가 공동 주최했다.

행복동행 마을만들기 ‘핑퐁한마당’

성남장북 지역주민과 소통 기회 제공



성남장북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핑퐁한마당을 진행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 이하 성남장북)은 11월 7일 행복동행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3회 핑퐁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원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일반부(비장애인) 52팀과 장애인부 9팀이 참여해 총 120명이 체육관을 달궜다.

친선탁구경기인 핑퐁한마당은 일반부와 장애인부로 나뉘어 복식부로 진행됐다. 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펼쳐졌다.

3회째를 맞이한 핑퐁한마당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교류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했다.

일반부에 출전한 비장애인 한○○ 씨는 “핑퐁한마당에 처음 참가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라켓을 잡고 있는 게 낯설었지만 열정적으로 탁구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장애인부에 출전해 우승한 서○○ 씨는 “평소 탁구를 즐겨했는데 그 결과가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생활체육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를 이유로 즐거운 체육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반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는 일반부 포스코 ICT-C팀과 장애인부 새싹팀이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다.

성남장북 측은 앞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함께 즐기며 교류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 사랑나눔대행진 개최

유성장북,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유성장북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대상으로 2015 사랑나눔대행진을 개최했다.

유성구청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북)은 한 해 동안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15 사랑나눔대행진’을 진행했다.

11월 4일 열린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장애인 700여 명과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유성장북 측은 올해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법인이사장·시장·시의장·유성구청장·유성구의장·국회의원·복지관장 등의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한전원자력연료(주), 국민은행 대전고객상담 UNIT, 한수원 중앙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민은행 반석동지점, 노은도매마트, 대전요양병원, 에이스마일치과병원, 조연회, 코오롱제약 대전공장,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등의 후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700가정에 쌀 4kg씩을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화행사로는 장애인 노래자랑과 장애인 가족 장기자랑을 진행했다. MC 곽성철의 사회로 팜페라 박민정, 색소폰 김연옥 외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복지관 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된 ‘하모니 합창단’의 무대가 큰 박수를 받았다.

야외 행사장에서는 노은2동 풍물패의 공연이 펼쳐졌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와 함께 기아자동차 노은지점에서 장애인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손성도 관장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 활동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어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나눔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괴산장북 장애인봉사단 자원봉사 훈훈

일완 홍범식 고택 말끔 청소



괴산장북 장애인봉사단이 역사관광지인 홍범식 고택을 청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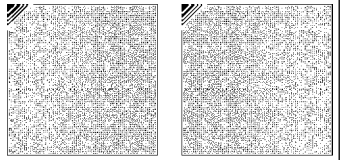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 장애인봉사단은 11월 12일 괴산읍에 위

치한 역사관광지인 일완 홍범식 고택에서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단은 문화해설사를 통해 고택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청소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단은 밝게 웃으며 마루 닦고 쓸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말끔하게 청소했다.

한편 괴산장북 장애인봉사단은 복지관 취업지원팀 훈련생들로, 2월부터 11월까지 산막이 옛길, 괴산고추축제장, 지역 내 인근 하천 등 총 4회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괴산장북 담당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한편 훈련생들도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 감동의 밤 선사

아산장북, 후원·자원봉사자의 밤 & 아장아장합창단 발표회



아산장북이 개최한 2015년 후원·자원봉사자의 밤에서 아장아장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은 아산시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에 기여한 후원자와 자원봉

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2015년 후원·자원봉사자의 밤 & 아장아장합창단 발표회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를 개최했다.

11월 12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영범 부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 장흥석 아산장북 후원회장, 이견희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 후원자, 자원봉사자,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 인

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패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먼저 후원자 부문에는 장흥석 대성상재 대표이사, 임정숙 야수타라프로헤어 원장, 곽충만 옹화동상가변영회장이 받았다. 자원봉사자 부문은 유영금 씨,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새아침동아리, 온양고등학교 심(心)봉사단이 수상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아장아장합창단 발표회가 열렸다.

2부는 복지관 신입직원 공연, 행운권 추첨, 백석대학교 실용음

악과 어쿠스틱밴드 2i, 경찰교육원 악대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포토존 기념촬영, 지문으로 희망나무 키우기,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름이 인쇄된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장애학생의 잠재된 끼 발산

달구벌장북, 대구교육감배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 개최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 수상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장북)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원으로 10월 22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5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를 개최

했다.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댄스를 통한 문화예술 및 여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팀과 순수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국에서 총28개팀 5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부문별로 초등통합부문 1위는 대구범물초등학교 댄스 UP! 희망 UP!팀이 차지했고, 중고어울림부문 1위는 강동고등학교 AT팀이 수상했다. 중고장애인부문 1위에는 대구성보학교 SB나래팀이 올랐다.

대회를 준비한 달구벌장북 강재형 관장은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대회의 의미를 밝혔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기획공연 성료

‘가슴으로 전하는 동행의 선율’ 두 번째 이야기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의 공연 모습.

충남관악단 희망울림(단장 임대혁)이 10월 24일, ‘가슴으로 전하는 동행의 선율’이라는 테마로 두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공연은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 그리워’를 시작으로 가을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하는 ‘젊은 그대’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누이’를 연주해 다양한 분위기의 선율을 지역주민에게 선사했다.

또 소프라노 구은경의 ‘그

리운 금강산’ 협연, 테너 임권득의 ‘희망의 나라로’ 협연과 두 사람이 함께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이어져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다.

희망울림 관계자는 “희망울림의 두 번째 기획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공연을 통해 다양한 관객을 만나며 교감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차별과 편견 허무는 건강한 발걸음

진천장북 제1회 걷기대회 200여 명 참가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10월 31일 진천읍 백곡천 일원에서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2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제1회 장애인복지관 걷기대회 ‘다같이 세상 밖으로’를 진행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건강한 발걸음을 옮기는 걷기대회는

3km가량의 백곡천변을 따라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천변을 걸으며 시골의 가을 정취를 감상했다.

한명수 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풍성한 행사를 위해

많은 경품을 후원해 준 지역 업체들과 진행에 도움을 준 해병대전우회와 장미로타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걷기대회는 식전행사로 국악난타 공연과 진천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참가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진천장북이 제1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2015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시보저보**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랑스런 지체장애인 대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인 김형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봉사대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인 안상수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이 화합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인 광주시청 정효심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부 양종수 과장과 지립상 수상자들.



복지부 양종수 과장과 지도자상 수상자들.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해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했다.



김정록 국회의원이 모범상과 자립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동익 국회의원이 모범상과 자립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장협 최우수 협회와 우수 협회를 시상한 후 수상지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동익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 양종수 과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장협 최우수 지회와 우수 지회를 시상한 후 수상지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추송근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함께 결의문을 읽고 있는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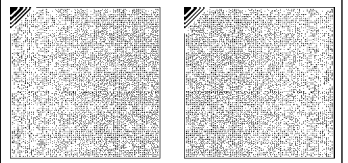


2부에서는 봉사대상 수상자인 가수 안상수 씨가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2부 사회와 공연을 펼친 강서구 휴먼희망일터 이명수 원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장한배우자상 수상 수기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윤한광 · 전순식 부부

통명스럽지만 따뜻한 눈빛을 한 남자

45년 전, 양 갈래로 정성스레 머리를 땋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입고 아버지를 따라 남편을 만나러 가던 길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추석맞이로 집집마다 바쁠 때였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느라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붉은 발갈래 상기된 채 남편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남편과 마주앉은 저는 부끄러움에 결눈질만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통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신한테 뭐 할라고 시집은 올라가요?”

집이 가난하여 이 댁으로 시집만 오면 집 한 채와 먹고 살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어르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어른들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꽃 같은 스무살 저는 가난한 6남매 집의 장녀였습니다. 큰딸을 윤 씨 댁 장남에게 시집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이웃의 제안에 그러겠다고 대답한 건 저였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먹고사는 배고픈 가족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와 결혼을 약속한 날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이를 처음 만난 날 그다지 슬프거나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까머리에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날 대했지만 눈빛이 따뜻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그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윤한광 · 전순식 부부

한파보다 매서운 시집살이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시집만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당신 아들 옆자리만 지키며 살게 해 주겠다고 시아버지가 결혼 직후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린 건 한겨울 추위보다 매섭다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오자 집안일을 하던 식모 2명을 내보내고 큰 집 살림을 제게 맡겼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가씨들과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식모로 여기는 것 같아 부엌에 쫓그리고 운전이 많았습니다.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걸을 수 없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 인생의 결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입지 때문에 제 방패막이가 돼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댁 식구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던 땅을 팔아 서울로 올라가고 몇 달 뒤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때마다 병신이 뭘 안다고 설치냐며 남편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명의 손아래 시누이와 시동생들 역시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쥔없는 부잣집 자식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옛날가는 동생들을 잡아보려 했지만 큰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동생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로서 형수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 아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쓰며 산 지 10년이 지나자 집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런 수완을 발휘해 화장품 대리점 등의 사업을 하며 살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지만 편하게 살아온 시동생들은 달랐습니다.

하나 둘 회사의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장부와 잔고가 맞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은 채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하 셋방에서 피어난 희망

사업이 실패하고 집 한 채 없이 지하 셋방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2남 1녀의 우리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보며 저는 뭐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자제품 부속품 조립 가내 수공업부터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식당의 서빙 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엄마를 위로해 주던 딸은 장성해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한 시름 덜었지만 이번엔 아들들의 학비가 걱정이었습니다. 1994년 큰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 휴학 후 군 생활 중이었고, 작은 아들은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아 평생 한이었던 저는 아이들의 학업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고맙게도 군대 제대와 동시에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주유소

와 건축 잡부, 공장 생산직 등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습니다. 방학 때면 친구들은 배낭여행이며 어학연수며 본인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까지 어깨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로 일과 학업을 병행한 끝에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달픈 환경이었지만 밝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동생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돌아보면 그런 남편이 있어 지금까지 형제들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동생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형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 자란 큰 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하던 날 본인의 장애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 하던 남편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했고, 남편과 손자 보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논을 보면 45년 전 아버지를 따라 남편을 처음 만나러 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수기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남편에게 고백해야겠습니다. 무뎌보이지만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장애를 가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단했냐고, 나도 당신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서 당당히 살아온 가족의 버팀목,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늘은 꼭 고백해야겠습니다.

휠체어장애인 겨울 추위, “걱정마세요”

헤스테나, 최적화된 발열담요 개발 보급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위를 싫어하지만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경우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추위는 곧 고통이 된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헤스테나(주)(대표 서동하)에서 생산·판매하는 발열담요가 전동휠체어/스쿠터 장애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헤스테나의 발열담요는 패딩원단을 사용하여 방풍·방습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동휠체어에 있는 배터리의 전기를 사용하여 직접 열을 발생시킨다.

패딩 재질의 담요 속에 발열조끼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하체 보온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겨울 추위에 약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소 염려스러웠던 배터리와 화상문제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터리의 경우 최고 소모량은 24V ±0.8a이고 실제 사용량은 시간당 ±0.5a로 하루 10시간을 사용해도 24V ±5a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발열패드에는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최대 55℃까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된 온도에 도달할 경

우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열이 들어온다.

주의를 기울여 온도조절을 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는 발열패드의 위치를 바꿔주기만 한다면 화상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발열담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들을 위한 꼼꼼한 배려이다.

발열담요는 담요형, 자루형, 자루오픈형, 바지형 총 4가지 종류로 사용자의 신체활동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지퍼고리, 지퍼방향, 주머니 벨트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최적화돼 있다.

현재 헤스테나의 발열담요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각 보조공학센터 및 자립생활센터의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전문기업인 오토북코리아와 제휴해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개인 구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헤스테나는 발열담요의 인기에 힘입어 조만간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방한 장갑이 출시될 예정이다.

헤스테나(주)는 향후 해외시장에 진출, 세계 여러 나라에 헤스테나 발열담요 보급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 장애인들이 편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열담요 실물 모습.

전동휠체어의 겨울이 따뜻할 수는 없을까?

전동휠체어의 새로운 겨울을 열다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발열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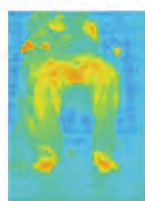
Heating Blanket for powered wheel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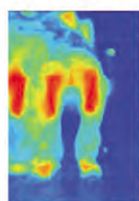
▲ 발열담요 착용모습

안전한 원적외선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며
화상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원적외선 열을 이용합니다.



일반 담요
실내 착용 10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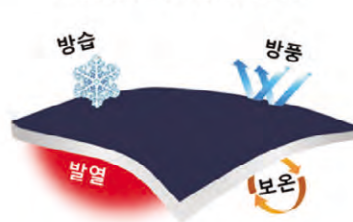


발열 담요
실내 착용 10분

✓ 최고 온도는 55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절기를 이용하여
간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추위에 적합한 원단

습기와 바람은 막아주고
따뜻한 열은 더해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패딩원단을 사용하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했습니다.

적은 배터리 소모량

- ✓ 헤스테나의 발열담요는 전동기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따뜻한 열을 냅니다.
- ✓ 온도 조절은 센서방식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 전원이 차단되어 배터리소모량을 최소화 하고 열 효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 케논잭을 사용하는 모든 전동 휠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케논잭입니다.



고객센터 070-8835-1779 / 010-2734-4239
NAVER에 [전동휠체어 발열담요]를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www.hestena.com

헤스테나 발열담요는 사용자의 건강과 행복까지 생각했습니다.
사이즈: 사이트 참조 종류: 담요형, 바지형, 자루형, 자루오픈형 재질: 폴리에스터
사용전압/전류: 24V, ±0.8A (시간당 평균 ±0.5A) 제조원: 헤스테나(주) 제조국: 한국



특허 출원 KIFA
10-2014-0183637 한국원적외선협회

장애인미술축제 ‘2015 JW 아트 어워드’

시각장애인 작가 박미 씨 대상 수상



시각장애인 작가 박미 씨가 대상 수상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와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2015 JW 아트 어워드’ 공모전을 시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문화 예

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국내기업이나 공익재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 미술대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29일 인사동 아라아트센

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시각장애인 작가 박미(37) 씨가 작품 ‘기억닢기’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박미 씨는 “장애인 문화예술이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모취지에 감명 받았다”면서 “미술 행하는 사람으로서 미션일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소통하는 작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최남숙(지체1급) 씨가 한국화 작품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신선영(청각3급) 씨와 유성희(청각2급) 씨는 서양화 ‘경전철’과 서예 ‘묵은 선생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나진수, 박세종, 박영실, 김덕 씨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와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종호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 등 내외빈과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장애인종합미술대축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자리매김해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창작의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부터 순수미술(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공예, 조각, 서예)과 디자인(일러스트, 미디어아트, 캘리그래피, 사진) 부문으로 나눠 공모했다. 공모작 총 237점 중 심사결과 총 63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장 김영빈 작가는 “대상 수상자인 박미 작가의 ‘기억닢기’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군더더기 없는 화면처리와 독창적인 표현 기법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공모전 입상 작가들은 더욱 정진하고 작품세계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상작은 11월 3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전시됐다. 전시회에는 수상작품 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만든 ‘클라우드소싱’ 창작물과 야외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목원 스케치·출사’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

서울 대학로 위치, 지상 5층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한 국내 첫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이 11월 13일 서울 대학로에서 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김용우 무용가와 장애인 뮤지컬배우 배은주 씨의 합동 공연, 발달장애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

창단 ‘에반젤리’의 노래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부대행사로 황영택 성악가가 장애인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강연을 진행했고, 방송인 이동우 씨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한편 2층 전시장에서는 ‘장애인 미술작가 초대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서울 종로구의 예총회관을 리

모델링한 이음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51억 원가량이 투입 됐으며 공연 연습장과 시각예술 전시관, 각종 회의 및 소통 공간, 소규모 창작 발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준공 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내부설비와 운영조직 구성을 완료,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개관기념 ‘장애인 미술작가 초대전’에서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다.

이음은 올해는 대관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대관 운영 외에도 장애인이 공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애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등 기획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7,687명의 선수단이 27개 종목(정식 26, 전시 1)에 참가했다. 폐

회식은 11월 1일,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주요내빈과 선수 및 임원, 강원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합우승은 경기도가, 2위는 서울이, 3위는 대전이 차지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일간의 열전

수영 조기성, 대회 MVP 5관왕 · 한국신기록 수립

개최지인 강원도는 4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은 수영 5관왕과 남자 50m 접영 S4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조기성(부산) 선수가 차지했다. 조기성은 지난 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관왕을 시작으로 33회 3관왕, 34회 2관왕에 이어 올해 5관왕을 달성했다. 대회 MVP에게는 (주)에드링턴코리아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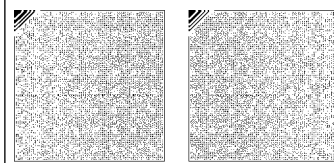
원하는 시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내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에서 개최된다.

대회 측은 이번 대회는 2018 평창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강릉이 주 개최 도시로 장애인 공공편의시설과 민간 상업지역 접근성 등을 사전점검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꿈나무·신인선수 육성프로그램에 의해 발

굴된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 6종목 10여명의 선수들이 메달을 일궜으며, 내년 리우패럴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기량을 점검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폐회식은 11월 1일,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주요내빈과 선수 및 임원, 강원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히어로 만화 탄생

딸 위해 제작... '능력자 부서'



'능력자 부서'를 제작한 화이트 단의 딸 에밀리가 만화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즐거워하고 있다. ©Success Circuit

영국에서 장애인 슈퍼히어로 만화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화 제작자는 척추장애인이인 어린 딸을 둔 아버지 단 화이트로, 딸을 위해 글과 그림을 모두 그려 '능력자 부서(The Department of Ability)'라는 만화를 만들었다.

단이 만화 제작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딸의 질문에서 시작했다. 어린아이답게 TV를 즐겨보던 그의 딸 에밀리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TV에는 휠체어가 나오지 않아요. 혹시 휠체어를 타는 것이 불법인가요?"라는 딸의 물음에 아버지 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

딸에게 즐거움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단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기존에 TV에서 방송

되던 만화와 다른 새로운 슈퍼히어로 만화를 설계했다.

그가 스토리를 쓰고, 캐릭터를 만든 만화 '능력자부서'는 각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하는 다섯 영웅이 나온다. 이들의 리더는 에밀리다. 작품 속 에밀리는 자신의 탁월한 신체 힘과 특수 휠체어를 활용해 악당들과 싸우는 강인한 인물이다.

에밀리의 동료로는 핵융합 기술이 내장된 첨단 의족으로 적을 무찌르는 치타, 레이더 및 제트 엔진 등으로 변신 가능한 특수 휠체어를 타는 개, 시각을 잃은 유령무사, 의수를 사용하는 외계인 등이 있다.

단은 장애아동들이 매체에 등장할 때 도움을 받기만 하거나 주변인에 머무르는 조용하고 수

동적인 존재가 아닌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TV 속 장애아동은 늘 슬픈 배경음악을 깔고 등장한다"며 "장애인 캐릭터 또한 정적이거나 교육적인 인물로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아동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방문해 다른 장애아동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TV에 비치는 장애인의 모습을 지겹게 여기고 있었다"며 "이들은 선입견 가득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는다. TV나 만화에 자신 같은 장애아동들이 재미있게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능력자 부서'의 출판은 골격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자선단체 '스트롱본(Strong-bone)'에서 맡아 내년 3월 출시된다.

음성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청각장애인 통역기 LTCCS 개발

음성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청각장애인을 통역기가 개발됐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다닐 프랜츠 등 10대 청소년 5명은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LTCCS(Live Time Closed Captioning System)'를 개발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인디고고(INDIEGOGO)에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LTCCS는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이 기기는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 소리가 입력되면 무선으로 연결된 마이크로컴퓨터가 이를 자막으로 변환시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방

식다.

음성과 잡음을 구별해 잡음은 제외하고 음성 부분만 자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용한 곳은 물론 잡음이 많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LTCCS는 현재 800달러(약 93만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이는 시중의 청각장애인 보조기



LTCCS를 안경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 ©INDIEGOGO

구보다 5배가량 저렴하다.

개발팀은 "미국에서만 4800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을 위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LTCCS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등장한 스타워즈 휠체어

장애 아들 위해 아버지가 손수 제작



미국에서 아버지가 선천성 척추 질환에 걸린 아들을 위해 '스타워즈 휠체어'를 손수 제작해 줘 감동을 주고 있다. ©youtube 캡처.

미국에서 선천성 척추 질환에 걸린 아들을 위해 '스타워즈 휠체어'를 손수 제작한 아버지가 화제다.

평소 휠체어를 타는 제레미의 아버지 밀러는 PVC 파이프와 접착제로 아들의 휠체어를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노스피더 병기 형태로 완전히 개조하는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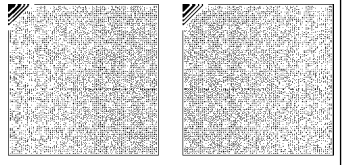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가 제작한 스타워즈 휠체어는 양쪽 창문이 열리고 닫힌다. 휠체어와 함께 손수 만든 기관총을 당기면 고무탄이 발사되는 기능도 갖췄다.

밀러는 "이 휠체어는 내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갖고 싶었던 것"이라며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밀러는 지난해에도 모터사이클 형태의 휠체어를 아들에게 제작해 줬다. 몸이 불편한 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즐거운 발명을 지속하는 아버지에게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2015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

장애인 편의시설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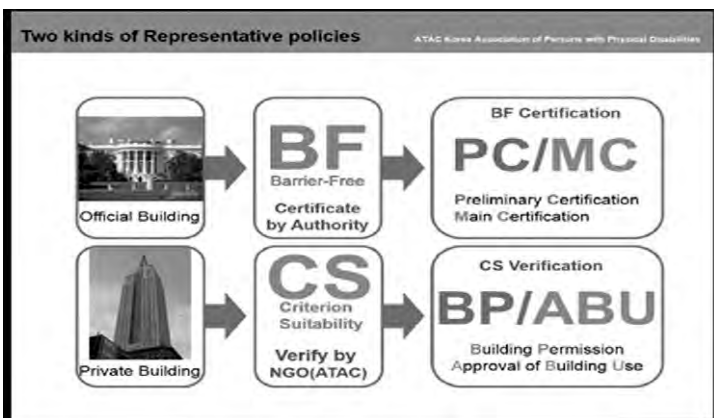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박성오 과장



한국의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홍현근 국장



BF인증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재원 팀장



홍현근 국장 발표자료 : 공공기관은 BF인증제를 민간건축물은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프로세스 설명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재원 팀장이 설명한 BF인증제 설명자료 중 일부

2015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영종도 스카이라이프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정책·법체계 정비의 발판 마련, 공동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2015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 이행을 위한 <2015 아·태 여성장애인 리더쉽 포럼>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14개국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서는 행사 첫날의 세션과 세션사이에 진행되는 사이드 이벤트의 총괄을 맡

아 진행하였다. 「편의시설 증진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첫 번째로 지장협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이 「한국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15분간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의 요지는 한국에서는 장애인 NGO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해외의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이 진행되는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재원 팀장이 나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제)」에 대해 15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BF인증제의 인증대상, 인증종류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도면 등의 예시자료를 보여주며 BF 인증기준을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시설에 BF인증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에 더 큰 호응을 받았다.

사이드 이벤트가 끝나고 몇몇 해외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만

남의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나라가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모아둔 한글 책자자료를 주기도 했다. 또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여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는 해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명함이 많이 쌓여갔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지장협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단순한 물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발휘하여 해외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해외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15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러한 해외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해외 장애인단체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해외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접목된 기술(예시 : 비콘을 활용한 장애인 지리안내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과 실제 이용사례를 들어볼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두 편리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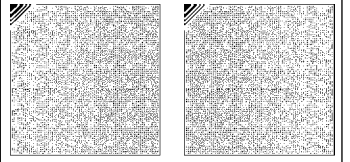


2015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대회 사이드 이벤트 전경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소리로 읽는 새보람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어떠세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의무화



유럽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인 경우가 매우 많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장, 승진,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거

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정상근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2년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단축근무를 허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단,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등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 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장애여성근로

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직장맘 여러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어떠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임신관련 상담(II) 지원제도



Q)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의료비 지원도 있는지요?

A)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신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Q) 입원 의료비 이외에 여타의 의료지 지원사업도 있는지요?

A) 예,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입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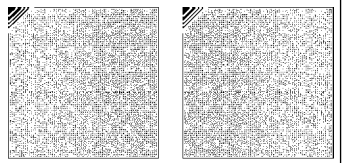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20→10%, 2015년 7월부터)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신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신부들이 부담하는 평균

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A)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올해 춘천·순천 시작...2017년까지 17개로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단이 지역 고용센터에 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 형태로 운

영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취업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부터 공단 강원지사 와 전남지사는 각각 춘천 고용센터와 순천 고용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단은 올해 2개 센터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1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초

기 단계에는 취업지원사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기업지원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되는 공단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사(☎1588-1519) 및 센터(춘천 033-250-1925, 순천 061-720-9179)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 사회활동사업' 고용부담금 예외 추진

이학재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함)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소득

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기관은 총 1227개('15.8월 기준)로, 약 37만개의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하는 노인 대다수(78%)가 老老(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보조,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을 하며,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근로자로 산정되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 은 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000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

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하여, 동 사업의 수행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퀴즈

- 11월 11일은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의 의지를 형상화한 기념일로 매년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 11월 6일 양천해누리타운 갤러리에서 장애문화예술인의 축제이자 독창적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제28회 ○○○○○○○○○○'가 열렸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
인권

당첨자

강원 강릉시	김남정
경북 칠곡군	조학원
서울 강서구	이민주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채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넨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렌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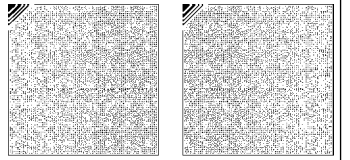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인권보장, 인류의 인권 완성으로 가는 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설지원부 황인욱

다가오는 12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확보를 다짐하는 기념일이다. 1992년 공식적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한 이후 23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생존권부터 시작해 주거권, 이동권, 교육권, 참정권, 문화예술향유권 등 인류 보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끝없이 요구하고 쟁취해 왔다.

그 길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 차별 사례를 통해 가야할 길을 모색해본다.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김 부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다시 힘을 냈고, 힘든 재화를 거쳐 직장에도 복직했다. 장애를 입기 전처럼 자유롭게 걷지는 못했지만 사무직인 김 부장의 업무는 휠체어를 타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장은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다.

→ 회사는 김 부장의 장애와 업무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장애판정을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국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 또 회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의거, 김 부장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여전히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이 씨는 좌측 팔의 마비증세로 지체장애3급이다. 그가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상담하고 있었는데 장애3급이라고 하니 상담직원이 막무가내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6급까지만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면 인권위법상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소지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단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투표 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시각장애인 박 씨가 사전투표를 하려고 투표소에 들렀다. 박 씨가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를 요구하자 사전투표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 수준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현대사회는 인권 담론이 폭증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적인 권리 주장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장하는 권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 중립 용어로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선을 위할 때 인권이 되는 것이다. 착취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 한 이유로 해고, 노동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착취 등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 투쟁을 하면 인권 투쟁이지만,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겠다고 욕심을 내거

나 자본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집단폐업을 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표출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인권은 아니다.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침해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 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의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장애인의 인권은 특수 집단의 인권이면서도 세계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지시적 경험이며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장애는 인권을 비취주는 역사의 거울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인권의 완성을 위해 인류에게 던져진 본질적 질문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인권 완성으로 가는 정도(正道)임을 확신하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는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을 기원한다.

참고 자료

유동철 외,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담 사례집》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0호 2015년 11월 27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계 인사이드 / 용인시장애인복지관 정의철 관장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며...



경제원리 중에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러한 법칙에 따라 공급자는 함부로 제품 생산을 늘리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많은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 공급자는 깊은 고민과 어려운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수요의

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가 임의대로 결정해 버리는 분야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수요는 얼마나 될지 수요자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급자의 입장만이 고려된다. 얼마 전 호흡기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호흡기장애인에게는 생명연장의 유일한 수단까지도 공급자의 판단으로 지원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정부는 복지효율화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 내용 역시 공급자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다고 하자. 김장을 담가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는 장애인복지

관부터 복지기관, 구청,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된 김치는 수요자분들에게 배달되는데 그나마 행사들이 여러 번 진행되다보니 수요자는 2~3박스 정도의 김치를 받을 수 있다. 김치 중복 수혜인 듯 보이지만 한번 김장을 담가 봄까지 먹는 양을 생각하면 풍족한 양이 아니다. 사실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런데 만약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급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김장담그기 행사를 지역 1회로 제한하면 어찌 될까?

수요자는 이때 김치를 못 받으면 더 이상 김치를 받을 기회가 없다. 또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지 1인가구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세부적인 여건들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정리하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 효율화는 수요

자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수요자 누락 및 양적 손해를 기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수요자의 희생위에 수립되는 공급자중심의 효율화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용자 또는 수혜자라고 부르던 호칭들을 복지관 등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즉 소비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수혜자라고 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관념을 바꾸고 고객으로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중 상당수는 '섬기는 마음으로'를 복지관의 미션 또는 설립 취지로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 복지서비스를 공급의 효율화 방향으로 추진해버리면 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제품생산량은 단순히

돈과 관련된 것이지만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사람의 삶 자체를 두고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복지서비스를 공급중심으로 중복인지 아닌지를 고민한다는 발상 자체가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수요자가 중복 수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과연 충분한 양인지를 판단하고 부족하다면 공급을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의 특징이다.

따라서 복지효율화는 수요자 중심에서 연구·검토해야 한다. 물론 수요자가 여유분이 있을 정도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중복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기본자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의 눈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정계원 사무처장



어느 한해도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나 싶지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구지장협)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무처장으로 올해 또한 뻘뻘하고 빠듯했습니다. 내년 이후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이것이 어디 대구지장협만의 상황일까요. 다른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 법인, 지장협의 전국 시·도 협회, 시·군·구 지회의 살림을 맡은 담당자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말은 또 어떠합니까. 조직과 사회복지 전달체

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년 내내 장애인복지 사업과 다양한 행사를 치르느라 소진된 역량을 끌어 모아 평가를 준비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의 경우 사업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지장협의 경우에도 2가지의 사업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해가 갈수록 예산은 그대로인데 관리감독부서의 요구사항이나 관리감사가 강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비교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계속 수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습

니다. 이에 사업 확대는 고사하고 유지조차 어려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각각 지급해주는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과는 달리 장애인단체들은 정해진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고충이 큼니다. 불안하고 힘든 재정상황 때문에 직원들이 복지관이나 시설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자리 잡아 직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정원 내에 들어오지 못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처우불균형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혹은 사회복지지는 정부와 복지관 등 기관만의 활동으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

부와 기관, 민간단체와 복지이용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며, 손잡고 함께 땀 흘릴 때 그 내용과 실천이 더욱 풍부하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 길에 중요한 주체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에 대한 자긍심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겠지요.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평균근속 기간이 종사자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관과 단체의 역량강화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 웃음과 보람이 있는 직장, 발전적인 목표와 비전이 있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단체의 건강한

살림과 사업 개발 및 발전에 골몰해야겠습니다. 물론 유익한 사업 개발과 발전은 단체나 법인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이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사업 폐지나 축소 방침에 단체나 법인이 휘청이거나 심지어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이는 복지 발전에 심각하게 저해되는 일임을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우리 종사자들도 업무능력 향상과 자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해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연구한 후 현장에 적용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을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현실과 바람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지체장애인의 날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시기였다. 그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그 시대에 장애인당사자 결집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전국 조직화를 통해 그동안의 전문가 중심의 구조를 단방에 당사자주의로 변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당사자단체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열악한 지역의 조직들은 사무실도 없이 시작한 곳이 많았다. 있더라도 작은 컨테이너나 허물어져 가던 건물에서 직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회원을 확보해나갔다. 장애인당사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던 전국의 장애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렇게 국내 최대 당사자조직이 태동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힘을 쏟았다. 장애인 당사자가 법과 제도의 제정과정에 참여하며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활동과 당사자의 결

집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의 자립과 단합은 1990년대를 거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고 이에 대한 격려와 단합을 위해 2001년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제정으로 이어졌다.

11월 11일의 1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로 우리 지체장애인이 단합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찬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1字의 형상은 직립의 의미를 부여해 지체장애인이 신체적 장애로 제 각각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똑바로 당당하게 세상을 확보하고픈 욕구를 담았다. 이와 함께 굳은 정신을 지향해 힘차게 일어선다는 의미도 된다.

또 1에는 첫째를 뜻하는 순수한 숫자 고유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숫자 그대로 스스로를 제일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가족과 우리 이웃 나아가 사회전체를 제일의 소중한 가치로 여김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를 염원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

올해 11월 11일에도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모여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평등 구현, 사회통합을 기원했다.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변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또 다른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국내최대 장애인 당사자단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역할의 중심을 맡아야 할 것이며 그 단합의 장이 지체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고 상국 장기철 초대회장이 만들어 온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대안들처럼 이제 또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직의 철학적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최대 당사자 조직으로서 복지사회를 열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다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구현하는 행복한 복지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故 상국 장기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대회장이 장애인복지에 헌신하다 영면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보내며 또다시 고인을 그리 본다.

2005년 여름, 장맛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고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신촌 연세대병원 병실 안에서는 그 카랑카랑하고 당당하던 목소리가 찾아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 협회 및

산하 지회는 장마피해가 없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걱정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인은 평생을 오로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달렸다. 안으로는 시·도협회 및 산하 지회를 둘러보며 전국 조직망 강화에 힘썼고, 밖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이끄는 정책마련과 제도 정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매진했다.

그가 장애인복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980년대는 격동의

리더스토리

김광표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저는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2급 장애인으로 신체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고 성장 시에는 생활의 일선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1986년 당시 다니던 회사에 하지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작업대의 높낮이 개조를 비롯하여 장애인들도 운전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핸드콘트롤 발명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여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이동목욕차량, 하이루프카 개발사업 등 장애인용 맞춤형 차량 연구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4년도에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협회는 여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및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복지의 잘못된 여러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로 26회째가 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통합동결혼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결혼식을 통해 행복감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회별 참여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래자랑과 휠체어릴레이, 줄다리기 등 화합행사로 구성된 부산장애인한마음대축제는 지금까지 보여주던 사회적 약자의 모습에서 비장애인들과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의 주역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부산시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공정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6월 중 장애인기능경기지방대회를 개최해 전국대회 30여 개 직종에서 금상선수를 출전시켜 준우승 등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의 장려를 위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와 장애인의 의지한계 극복을 위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전국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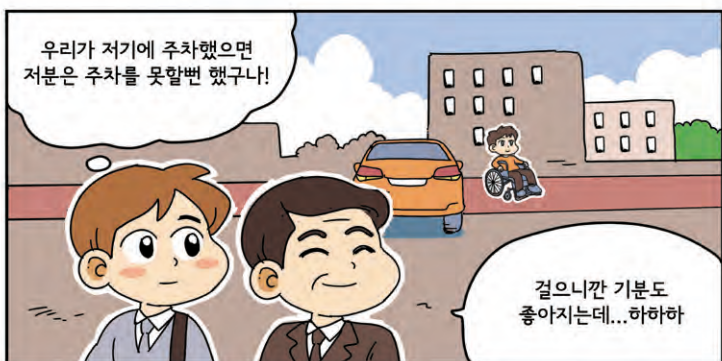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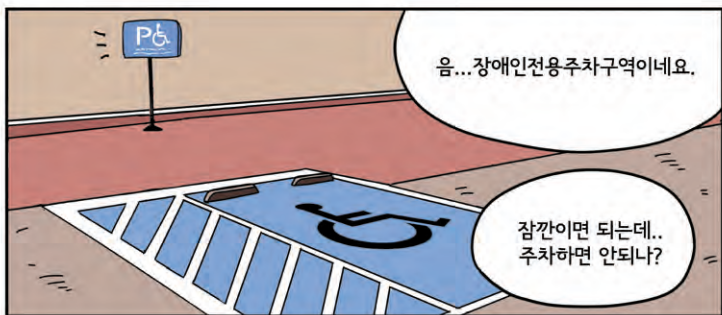
장애여성대회, 전국중증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 지회장 해외연수 등에 참가하여 부산시 장애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2014년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확립이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장애인 차별과 의식의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화합하는 사회구현과 모든 장애인이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관련법, 정책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벽을 넘어 동행의 주역이 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

①출장편



②마트편

©KAPPD

